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경: 요한2서 3~9절

Tag: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이1:3-9)

요한이서는 요한 사도의 짙막한 서신이다.

당시의 사도요한은 나이 많아 늙었고,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사도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짙막하고 분명한 지침을 교회에 주고 있다. 오늘날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교훈이 되고 있다.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핵심이 되는 교훈은 3절에 담겨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기원, 축복)

-용어 정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복들이다.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은혜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시는 복을 말하고, 긍휼은 죄사함과 저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강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고,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친밀감을 말한다.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다. 결코 세속적인 요인들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한다. 진리와 사랑은 마치 보석함과 열쇠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집 안에 진리의 보석함이 있고, 그 보석함 속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들어 있으며, 그 보석함을 여는 열쇠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우 요긴하고 절실한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절실한가?

-세상은 항상 만만하지 않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이어받고,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명은 오직 내가 무엇을 이어 받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힘입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법칙(정글의 법칙)으로 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록 치밀하며, 사람의 상상이나 계산을 뛰어 넘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그 방법은 매우 창조적이지다. 하나님이 시니까.

-물론 은혜는 자기하기 나름인 이유도 있다. 은혜는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값없이 받는 것이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 자녀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자기가 하는 만큼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위치에서 받게 되는 복이 다를 수 있다.

-공홀은 죄인 된 우리에게, 저주가 많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후회할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공홀은 강력하게 작동한다.

-은혜와 달리 공홀은 회복이나 유지와 관계가 깊다. 건강이나 지위나 관계나 재산이나 명예나 재능 등을 잃어버릴만한 사건이나 시기가 되었을 때, 또는 저주의 스위치가 작동될 때 하나님의 공홀이 절실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홀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혜와 공홀이 절실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담대해야 한다. 우리의 초점은 진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인정하시는가? 죄인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홀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푸신다.

-평강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초월적

인 힘이 있다. 이 평강 만큼은 빈부귀천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평강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평강은 꿈속까지 임한다.

ex) 처남 면회. 우리가 응급실에 가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경고함을 받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남겨진 영적 숙제를 한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안심시키고, 죽는 순간까지 평안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복된 것들은 오직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였고, 이때는 은혜가 진리보다 앞서 언급되었다. (2회)

그런데 요한2서에서는 진리가 사랑보다 앞서 언급되어있다. (2회)

왜냐면 적그리스도,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 하셨다.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강경하고 완고한 교훈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랑을 앞세우고 진리를 따를 것인지, 진리를 앞세우고 사랑을 베풀것인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확실하게 은혜를 앞세우신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 정답이다.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 이단;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원론.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 악한 것으로 따진다면 그 영과 정신이 더 악하다. 육과 물질은 그 영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한다.

-창조주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하급 신격이고, 오직 영으로만 존재하는 신이 상급 신이라는 괴변론자들.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훈.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Tag:

야고보서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4:7)

86. 빌립보서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4:6)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구하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합당한 감사가 있었는가? 감사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87. 골로새서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3:15)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음; 평강을 위해 힘쓸 것을 교훈하심.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사명임.

-아무와 어떤 다툼도 하지 말고, 어떤 질투도 하지 말라.

-다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겸손하며 친절하며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는 조선시대의 양반이 아니다.)

88.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항상 기뻐함, 쉬지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 기초 체력.

89. 디모데후서 4:2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4:2)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

90.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3:5)

-구원의 법칙 , 오직 주의 긍휼, 거듭나기 위한 세례(물세례), 성령으로 거듭남(성령세례)

91.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4:12)

92.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죽음과 심판과 영생에 관한 복음

93. 야고보서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1:15)

94. 야고보서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2:26)

행함과 믿음 (계명을 지키라,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95. 야고보서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4:7)

-복종이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됨.